

쪽방촌 사람들의 희망찾기

(2)거주가 불안정한 쪽방거주인

대구의 한 '쪽방촌'. 일명 벌집촌이라고 부른다. 좁은 골목길에 나무, 벽돌, 시멘트 등으로 지어진 집들이 자리잡고 있다. 3.3㎡도 채 되지 않은 쪽방에 거주민들은 혼자나 단체로 생활한다. 간단한 취사도구와 이불이 방 한구석을 차지하면, 햇볕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골방엔 겨우 누워 잘 공간만이 있을 뿐이다. 담배 꽂초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밖으로 나갈 구멍도 마땅찮다.

이곳에서 만난 김창걸(가명·54)씨는 쪽방에서 할일 없이 앉아있다. 한 벌 뿐인 외투를 입고 이불까지 덮고 있지만 추운 기색이 역력했다. 바닥에는 누군가 갖다준 전기요가 있었지만 비싼 전기료 때문에 방치돼 있다. 천장에 굴비를 메단 자린고비가 생각났다.

나는 그래도 이 방이 있어 행복하다



일자리 없는 겨울철 돈없으면 노숙밖에 방법없어
재개발로 쪽방 사라져도 쪽방인은 사라지지 않아
대책없는 개발·철거보다 지속적 정비·관심 필요

“불경기 때문인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있다해도 젊은 사람들 몫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김씨처럼 건설일용직이나 행상 등과 같이 이동성이 강한 직업군에서 일한다.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방값 낼 걱정이 태산이다. 방값을 못내면 노숙자로 나서야 한다. PC방, 만화방에 갈 돈이라도 수중에 있으면 다행이다.

그는 아침은 굶고 점심은 인근 무료급식소나 복지관을 찾는다.

그래도 그는 노숙인에 비하면 그나마 바람 막을 방이라도 있어 낫다.

대구역에는 노숙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곳에서 만난 노숙인 이기문(가명·61)씨는 얼마전까진 쪽방촌 사람이었다.

그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그는 “낮에는 그나마 버틸만 하지만 술 없이 밤을 지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술이 친구가 되고 자신을 병들게 한다. 알코올중독이나 결핵 등 호흡기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대구쪽방상담소가 최근 쪽방거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12.8%가 알코올중독자였고, 상습음주 등 잠재적 중독자는 25%였다.

또다른 노숙자인 김문수(가명·47)씨는 예전엔 막노동을 해서 모은 돈으로 한달에 16만원을 내고 여인숙에서 기거했단다. 그러나 그나마 있었던 막노동관 일자리도 뚝 끊겼다.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 쪽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담소에서 조사한 쪽방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겨울에 가장 힘든 점은 ‘일거리가 없어 생기는 생계 곤란’이란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또 동절기 주거생활을 묻는 질문엔 27.3%가 ‘방값을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사정해 겨우 노숙자 신세를 면했다’고 답했고 26%는 ‘쪽방에서 나와 거리노숙 등을 한다’고 대답했다.

◇삶의 터전 위협하는 도시재개발

쪽방지역의 철거, 그리고 계속 수립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 등 도시재개발사업은 쪽방인들의 주거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상당소 장민철 사무국장은 “쪽방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변화된 쪽방지역의 모습이 과연 바람직할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적절한 주거대책을 동반하지 않은 개발사업과 철거가 쪽방주민들의 주거를 하향이동시키거나 주거상실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주택 공급이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제적이 사정이 빈약한 이들로선 이주할 돈이 없을뿐더러 이들에게 내어줄 임대주택은 일거리가 그나마 있는 도심과 동떨어져 있다.

장 국장은 “쪽방이 사라진다고 쪽방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주거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쪽방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될 뿐”이라며 “5년전 칠성동, 신암동, 대현동이 재개발되면서 이곳 쪽방민들은 달서구, 남구로 이동했다”고 했다.

재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들은 지금보다 비싼 돈을 들여 유사쪽방화되고 있는 고시텔이나 일반주택의 월세방 등으로 이동하든지 그도 아니면 그 지역의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거나 노숙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들이 쪽방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곳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인력시장과 가까운 곳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쪽빛 비치는 방, 쪽방

‘쪽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쪼그만한 방’이라고 얘기한다. 혹은 작은 공간에 많은 세입자를 두기 위해 방을 여러 개로 쪼갠 방으로 이해한다.

다 뜻은 통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쪽방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쪽방인을 위한 지원법도 선진국에 비하면 미비하다.

‘노숙자’는 개념이 주거가 없는 자로 개념이 명확한 까닭에 이들을 위한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쪽방인들은 나라에서 주는 작은 혜택이라고 받고 싶으면 쪽방에서 나와야 한다. 사회가 쪽방인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특히 영국은 노숙자나 주거가 불안정한 계층(쪽방인) 등을 ‘홈리스’라고 부르며, 사회·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국 5천600여명의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법은 있지만 주거가 불안정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은 없다.

상당소 윤승걸 소장은 “쪽방을 철거의 대상이 아닌 빈곤가구의 주거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선돼야 한다”며 “쪽방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빈곤가구가 저렴한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주거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쪽방밀집지역에 대한 대책없는 철거보다는 쪽방에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쪽방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또는 조례)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이곳을 정비하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원 문의 : (053)356-3494, 계좌번호 007-04-000442-7(대구은행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